

亡命 後 金澤榮의 世界觀 研究*

- 漢詩 作品을 中心으로 -

金晋郁**

〈차례〉

- I. 序論
- II. 亡命 生活에서 體化된 朝鮮 認識
 - 1. 亡命 科程에서의 朝鮮 認識
 - 2. 中國 知識人과의 交遊詩에서의 朝鮮 認識
- III. 歷史的 事件을 통한 朝鮮 認識
 - 1. 知己의 殉國을 통한 朝鮮 認識
 - 2. 安重根 의거를 통한 朝鮮 認識
- IV. 結論

I. 序論

‘文學이 現實의 反影이다.’라는 命題는 文學의 한 측면을 가장 有意適切하게 표현하고 있다.¹⁾ 또한 이 명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예술은 인생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과제번호 2004-072-AM3041, 과제명; 근현대 韓中 작가의 ‘朝鮮(韓國)’ 제재 작품 번역과 연구)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조선대학교

1) 文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가장 흔한 研究 태도는 대부분 文學작품을 사회적 文헌으로서, 사회 現實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研究하는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사회의 모습이 文學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체계적인 文學 研究가 가장 일찍이 文學에 부여한 효용의 하나였다. 르네 월렉·오스틴 워렌 공저, 金秉喆 譯, 『文學의 理論』, 서울, 乙酉文化社, 1996, 153~154쪽.

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정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르네 윌렉은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작가는 사회 현실을 문학 작품에 반영하며, 동시에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認識하고 있는 이상적 사회로의 진출을 꾀한다고 주장하였다.²⁾

金澤榮은 韓末四大家의 한사람으로 그의 문학적 완성도에 대한 研究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도 그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³⁾, 그가 남긴 문학 작품들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時代的 狀況과 당시 지식인의 歷史認識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문화 유산이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 작품을 통하여 당시 지식인이 가졌던 일반적 역사 인식을 再構해 보는 일은 문학자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研究는 金澤榮 문학의 완성도보다는, 문학 작품에 투영된 世界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金澤榮(1850~1927)은 경기도 개성 출신으로 본관은 花開, 자는 于霖, 호는 滄江, 당호는 韶濩堂主人이며, 조선 말기의 관료, 문학자, 계몽가, 역사 저술가, 출판 편집가이다. 1903년 흥문관 찬집소의 문헌비고 속찬위원으로 벼슬이 통정대부에 올랐고, 1905년 여름 학부 편집위원에 임명되었으나 9월에 사직하였다. 이 해는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여 大韓帝國의 外交權을 완전히 박탈한 가운데 ‘乙巳勒約’이 체결된 해이다. 그리하여 그는 관직을 사직하고, 김윤식의 소개로 알고 있던 중국인 張謇(1853~1926)의 주선으로, 1905년 9월 9일 인천항을 출발(9월 6일 서울을 떠나)하여 上海로 갔다.

金澤榮은 상해에서 장건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翰墨林書局에서 편집의 일을 맡게 되며, 이 시기에 그는 창작 활동과 병행해서 한문학에 대한 정

2) 위의 책, 152쪽.

3) 金澤榮의 文學 활동은 주로 당시의 한시단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주로 한자시를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편만 소개되고 많은 작품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시기 한시단의 리건창, 황현, 강위 등의 작품이 소개되지 않고 있어 조선근대문학은 많은 부분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金澤榮 文學의 발굴 사업이 조선근대문학사를 풍부히 하는 사업이며 조선근대문학에서 그 문학 유산을 옹계 다루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여기었다.(박충록, 『金澤榮 文學 研究』, 서울: 태동, 1989, 머리말) * 박충록은 1928년 중국 길림성 연변시에서 태어나 북경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조선문학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다.

리·평가와 역사 서술에 힘을 기울였다. 또 이 시기에 장건을 통해 중국(강소, 절강)의 대표적인 개혁 지식인인 嚴復(1853~1921), 梁啓超(1873~1929), 俞樾(1821~1906), 章炳麟(1868~1936) 등과 交遊하게 된다.

金澤榮은 詩에서의 黃玆과 文에서의 李建昌과 병칭될 정도로 시문에 뛰어났다. 그는 古文家로서 文章一道를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 고문의 전통과 맥락을 독자적으로 체계화시켰다. 특히 중국 망명 이후에는 주로 우국적인 시작품을 많이 썼다. 특히 망국의 한을 작품 속에 담아내어 지식인의 고뇌를 표출하였다. <嗚呼賦>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의 역사인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저서로는 『韓國歷代小史』·『韓史繫』·『校正三國史記』 등이 있고, 시문집으로 『滄江稿』와 『韶濩堂集』이 있다. 국내에는 1978년에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金澤榮全集』 1~6권(아세아문화사 간행)이 있다. 金澤榮의 한시는 『습刊韶濩堂集』의 詩集에 권1부터 권6까지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권1은 1872년(임신년)부터 쓴 漢詩이며, 권6은 그가 사망한 1927년까지 해당되나 이곳에는 1921년(신유년)까지만 보인다. 이들 중에서 중국 망명 시기에 쓴 작품은 滄江이 상해로 떠난 해인 1905년(乙巳稿)부터 해당된다. 이 시기에 포함되는 작품은 전체 232제 399수이다. 이 중 엄복의 和答詩 2제 5수와 沈友卿의 화답시 1수, 屠歸甫의 화답시 1수, 張謇의 화답시 1수 등 총 5제 8수는 중국인 지기들의 화답시이다. 또한 이 시기 처음에 소개되는 <奉和俞曲園先生> 등 4수의 작품은 망명 이전 국내에 있을 때 쓴 작품으로 推定된다. 이들을 제외하면 滄江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쓴 작품은 224제 387수이다.⁴⁾ 이 작품을 중심으로 金澤榮의 역사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4) 金澤榮 文學에 대한 선행 研究로서 주목받을 만한 研究는 박충록의 『金澤榮 文學 研究』(태동, 1989)와 오윤희의 『滄江 金澤榮 研究』(국학자료원, 1996)가 있다. 金澤榮이 우리 문학사에 끼친 영향에 비하여 研究가 소홀한 것은, 그의 한시 작품이 전부 국역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명 후 작품은 研究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본 연구팀에서 망명 후 작품 전체가 국역과정에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국역 작업의 최초 결과물이다.

II. 亡命 生活에서 體化된 朝鮮 認識

1. 亡命 科程에서의 朝鮮 認識

金澤榮이 조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과정과 망명길에서 느낀 그의 憂國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10제 18수이다. 이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작품으로 추정되는 <六日, 自漢城, 挈眷, 出仁川, 將往清國上海, 書別李茂才(範仲), 三首>를 살펴보자. 이 작품은 1905년 9월 6일에 한성으로부터 가족을 이끌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중국 상해로 떠나면서 시로써 이무재(範中)와 이별하였다는 내용이다.

隣居二百日	이웃에 산 지 이백일
過從日三四	하루에 서너 번씩 서로 만났네.
如何不告行	어찌 떠남을 말하지 않으리요마는
恐有臨歧淚	헤어질 때 눈물 흘릴까 두려워서라네.

君能好古文	그대는 능히 옛 글을 좋아하나
介介 ⁵⁾ 兼離俗	이 세상 맞지 않아 세속을 떠났네.
嗟爲人棄捐	슬프다 사람들은 버렸으나
一似豐年玉	한결같이 좋은 옥 같네.

漢北千峰曙	한강 북쪽 모든 봉우리에 새벽이 오면
江南萬里秋	강남 만리로 떠나는 때라네.
離亭一聲笛	이별하는 정자에서 부는 것대 소리를
風使得聞不	바람결에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六日, 自漢城, 挈眷, 出仁川, 將往清國上海, 書別李茂才(範仲), 三首>⁶⁾

5) 介介: 고립하여 이 세상에 맞지 않은 모양

6) 6일에 한양으로부터 가족을 이끌고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장차 청나라 상해로 떠나면서 시로 이무재(범중)와 이별한 세 수

작품의 첫 수에서 오랜 知人과도 이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드러난 시구에서는 헤어질 때 흘릴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라지만, 그 눈물이 단지 이별의 정한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 번째 작품에서 알 수 있다. 이른 새벽에 조국을 등지고 만리길을 떠나야 하는 心懷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리지 않는 피리소리가 가슴을 에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金澤榮은 9월 6일 서울을 출발하였고, 다시 인천항에서 9월 9일 출항하여 동월 14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서울을 떠나면서 지은 작품이다. 다음 작품인 <九日, 發船, 作二首>는 인천항을 떠나 상해로 가는 배전에서 읊은 시이다. 비류성 밖의 푸른 물과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가 희망하던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흥이 절로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을 돌려 동쪽을 바라보니 일제의 살벌한 기운이 가득하건만 조국의 어려움을 구할 인제는 찾을 길이 없어 ‘落日’과 ‘浮雲’으로 상징되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대하면서 자꾸만 되돌아보는 시인의 어두운 심사가 드러나 있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沸流城外水如藍	비류성 밖에 물이 쪽처럼 푸르니
萬里風來興正酣	만리 바람 불에 흥에 취한 듯하네.
誰謂火輪躡舶子	누가 기선이 배보다 모질다고 말하였느냐
解裝文士向江南	행장을 풀어놓은 선비 강남으로 향하네.

東來殺氣肆陰奸	동쪽으로 음에 살기가 더욱 음산하니
謀國何人濟此艱	나라를 걱정한 누가 이 어려움 구제할 것인가.
落日浮雲千里色	석양에 뜬구름은 모두 한 색인데
幾回回首望三山	몇 번이나 머리 돌려 삼각산을 바라보았는가.

<九日, 發船, 作二首>⁷⁾

작품의 첫째 수 頸聯을 보면 기선이 배보다 모질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

7) 9일에 배 출발하며 두 수를 짓다.

는 心懷가 드러나 있다. 근대의 상징인 기선의 뱃고동 소리가 작가에게는 웅장함보다 처연함을 느끼게 한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조국을 등지는 자신의 신세가 의탁되어 드러났기 때문이다. 행장을 풀어놓고 강남으로 행하는 작가에게 강남은 신천지가 아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몇 번이나 머리 돌려 바라보는 삼각산인 것이다.

둘째 작품 頷聯에 나타나 있듯이 누가 이 어려운 나라를 구제할 것인가라는 자문에 작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조국을 등지는 이유이다. 다음 작품인 <至上海>는 9월 14일 1차 목적지 상해에 도착한 감회를 읊고 있다. 이 작품에서 조국을 등지는 작가의 心懷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屈曲船行螺殼裏 배가 소리껍질 속 같은 곳을 이리저리 헤쳐 가니
衝波樓閣萬重驕 파도에 부딪친 누각 같은 배가 만 겹으로 의연하네.
江南到日能忘否 강남에 이른 날을 능히 잊으랴
九月中旬第四宵 9월 14일 밤이라네.

林際春申⁸⁾宅在亡 숲 사이에 춘신군 집 어렴풋하니
江聲似罵李園⁹⁾鋌 장강의 물소리가 이원의 제자를 날카롭게 꾸짖는 듯하구나.
當時食客三千輩 당시 식객 3천명은
已兆如今大港場 이미 지금 큰 항구가 될 징조였구나.
<至上海>¹⁰⁾

작품의 첫째 수 경련과 미련에 보여지듯이 작가에게 9월 14일은 잊을

8) 春申: 춘신군(春申君).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재상. 이십 여 년 간 재상으로 있었고, 문하에 식객이 삼천 여 명이 있었다 함.
9) 李園: 이원(梨園). 연극계와 극단이라는 뜻. 당나라 현종은 음악을 좋아하여 궁정악인의 자제 300여 명을 이원에 모아놓고 직접 음악을 가르쳤는데, 이들을 이원의 제자라고 한다. 배나무를 심은 궁정 안의 뜰에 교악부를 설치한 때는 714년 무렵이다. 후세 연극의 시조신으로 모셔진 현종을 기념하기 위한 <이원>이라는 말이 점차적으로 극단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10) 상해에 이르다.

수 없는 날이다. 그 날은 작가가 조국을 등진 날이며, 새로운 세계에 첫발을 디딘 날이다. 작가는 두 번째 작품에서 춘신군과 이원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망명이 결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滄江은 결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조국을 등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망명해온 사실에 대해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집』의 권5 <傲屋記>에서 옛날 초나라 신포서와 명나라 위숙자의 고사를 인용해서 “신포서는 秦에 달아났다가 다시 수도 郢을 회복하였고, 위숙자는 學義를 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취미산에 숨어 지냈다.”고 하면서 결과는 같지 않으나 이들이 나라를 생각한 뜻은 같은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신은 한갓 자신과 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으니 이들과 거리가 멀다면서 자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망명길에서의 金澤榮의 心懷는 憂國과 自愧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中國 知識人과의 交遊詩에서의 朝鮮 認識

滄江은 중국으로 망명해서 여러 사람들과 폭넓게 사귀었는데, 청말의 대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유월을 비롯하여, 북경대학교 엄복, 淸翰林의 도기, 양계초, 정소감, 사건암, 주진기, 장건 형제 등이다. 그 중에서 가장 깊게 사귀친 친구는 장건 형제이다. 장건은 임오군란 때 오장경의 참모로 종군하였고, 정치가, 문학가, 실업가로서 救世와 安民에 뜻을 두어 ‘實業救國’을 주창한 인물이다. 滄江은 이미 장건에게 중국에 가고자 하는 심경을 토로하는 시 <贈張齋菴季直>¹¹⁾을 보낸 바 있고 계속하여 서신을 왕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05년 조국을 떠나 상해를 거쳐 남통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들 형제가 경영하는 翰墨林書局에서 校書의 일을 보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書局을 통해 通史, 시대사 및 문집, 시집을 간행할 수 있었던 것

11) 『전집』 권1, 180~181쪽.

이다. 이렇듯 滄江의 망명은 한갓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형제와 관련한 작품이 많이 보이는데, 장건은 주로 ‘耆翁’으로, 그의 형 장숙엄은 ‘退翁’으로 지칭하여 많은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다음 작품은 金澤榮과 장건의 交遊를 알아볼 수 있는 시이다.

吾生六十雪渾頭	내 나이 예순에 머리 다 희어
萬里胡爲汗漫遊	어찌 만리 먼 길에 아득히 노는고
已駕浮雲凌渤海	이미 뜬구름을 타고 발해를 건너왔으며
更隨明月到蘇州	다시 명월을 따라 소주에 이르렀네.
艱難莫制袁安 ¹²⁾ 淚	어려움에 원안의 눈물을 억제할 수 없고
居處將從詹尹 ¹³⁾ 謀	거처함에 장차 침윤의 피를 좇으리라.
重把百年知己手	거듭 오래된 친구 손잡고
臨風暫自解煩憂	바람을 대하니 스스로 근심 해소된 듯하네.

那堪回首結交初	우리가 처음 사귀던 때 어찌 돌아볼 수 있으랴
二十三年一夢虛	23년이 한 꿈 같구려.
正歎眼中人已老	눈앞에 있는 사람 이미 늙은 것을 탄식하니
不知天下事何如	세상일이 어찌 될지 못하겠네.
危機屢削藩籬勢	위기는 자주 변방이 깎기는 형세요
妙算空呈改革書	교묘한 계책은 공연히 개혁을 드러낸 글이었네.
教育知君心膽熱	그대의 교육열은 가슴이 뜨거움을 아나니
英才他日總瑤璵	훗날에 모두 훌륭한 영재가 되리.
	<上海晤張薈菴修撰有贈> ¹⁴⁾

이 작품에서 金澤榮은 장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첫째 수에서 늙은 나이에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心懷가 처연하게 드러나 있다. 후한 때의 袁安과 같이 조국에서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

12) 袁安: 後漢 중기의 충신. 벼슬이 司徒에 이르렀는데 和帝 때 竇憲이 전횡하매, 이를 탄핵하여 조금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음.
 13) 詹尹: 천문, 지리 등을 알아보는 관서의 장(長).
 14) 상해에서 수찬 장색암을 만나서 주다.

지 않았어야 함에 대한 회한과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자각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자각에 장건의 삶이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실 金澤榮은 장건이 운영하는 翰墨林書局에서 문장으로 보국하겠다는 이 시에 드러난 의지를 실천하였다.¹⁵⁾

엄복도 滄江과 가까이 교류한 인물이다. 그는 청말의 개혁사상가로 文學보다는 서유럽 자본주의 철학 및 사상서를 번역 소개했는데, 허슬리의 『진화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몽테뉴의 『법의 정신』 등의 명저를 번역 소개하여 당시 근·현대로의 전환기를 살았던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이후 중국의 전통적인 봉건사상과 예교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엎게 만드는 개혁 사상적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다.

金澤榮은 반봉건적 계몽사상의 전파라는 공통적인 시대 인식 속에서, 동양의 근·현대의 선각자적 지식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조선과 중국 더 나아가 동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였다. 다음의 작품은 이러한 엄복과의 交遊가 드러난 시이다.

憶昨長康冷館中	옛날 장강의 추운 여관 속에서
高人何幸晤言同	다행스럽게 훌륭한 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네.
洋洋魚躍濠梁水	성대하게 고기는 호양수에서 뛰고
霍霍蛇逃樂令弓	빠르게 뱀은 낙령궁으로 도망하네.
一代眞才惟汝在	한 시대 재주 있는 이는 오직 네가 있고
古來知己與神通	예로부터 친구는 신과 더불어 통한다네.
春雲萬里滄溟路	봄 구름 만리 바다 길에
悵悵那堪獨向東	쓸쓸히 홀로 동으로 향함을 어찌 견디랴.
靑蓮華眼恣冥觀	이백의 빛난 눈이 어두운 곳 봄을 방자히 하니
紆曲圓方豈一端	굽고 둥글고 모남이 어찌 한 끝이리요.
絶學直隨時變化	끊어진 학문은 바로 때를 따라 변화하고
文章斷說氣波瀾	문장은 결단코 기를 말하여 물결을 일으키네.

15) 오윤희, 『滄江 金澤榮 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1996, 28~30쪽.

著書幾下千行淚
醫世空藏九轉丹
歲色不知人已老
又催霜露敗崇蘭

지은 글이 어찌 천 줄기 눈물에 내리리요
세상을 치료하려 공연히 좋은 약을 소장하였네.
세월이 사람 이미 늙음을 알지 못하고
또 서리를 재촉하여 좋은 난초 죽이네.

此身胡又在通州
玉露黃花倍作愁
屈子懷邦無補楚
左生收籍早辭周
五年辛苦鯨千里
萬古興亡貉一丘

이 몸이 어찌 또 남통에 있느냐
국화에 이슬 내리니 근심이 배가 되네.
굴원은 나라를 사랑하였으나 초나라에 보탬이 없었고
좌 선생은 문서를 거두어 일찍 주나라를 사직하였네.
다섯 해 고생 끝에 고래가 천리를 헤엄친 것 같고
오랜 세월 흥하고 망한 것이 오소리가 한 언덕에 산 것
이라네

惟是向君如意舞
汾河朝暮可同舟

오직 이 그대를 향하여 뜻이 춤추는 것 같으니
분하에서 아침저녁으로 가히 배를 함께 하세나.
<寄嚴幾道>¹⁶⁾

金澤榮은 엄복이 개혁사상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명저의 보급에 진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조국의 장래에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다. 金澤榮이 망명 후 한시 창작보다 더욱 힘을 기울인 것이 역사서의 저술이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韓國歷代小史』, 『校正三國史記』, 『韓國繫』 등의 저술을 남긴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둘째 수에 드러나 있듯이 좋은 작품집을 후세에 남기려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燕巖集』, 『申紫霞詩集』, 이견창의 『明美堂集』, 황현의 『梅泉集』, 『麗韓九家文抄』 등의 많은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작품의 셋째 수에 드러나 있듯이 굴원은 중국을 대표하는 충신이나 초나라에 보탬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 역시 조국을 위하여 몸을 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조국에 어떤 보탬이 되겠냐는 위안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대를 향하는 뜻만이 춤을 추는 마음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憂國이라는 것이다.

16) 엄기도에게 부치다.

金澤榮은 많은 중국 지식인들과의 交遊 속에서 망명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우국의 방법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그는 현실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저술에 힘을 쏟았다. 그가 남긴 문학 작품 외에 많은 저술들은 현재 사학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시인이었던 金澤榮은 문학 작품 속에 그의 망명지에서의 우국관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Ⅲ. 歷史的 事件을 통한 朝鮮 認識

1. 知己의 殉國을 통한 朝鮮 認識

1905년 11월 9일 일본특명전권대사 伊藤博文을 파견하여 하야시공사와 주한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앞세워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新協約案을 체결한다. 그 과정을 보면 이토는 하세가와와 함께 전후 3차례에 걸쳐 고종을 알현하였으며, 11월 16일 貞洞의 손탁호텔에서 참정 대신 韓圭高 이하 8대신을 위협하여 협약안의 가결을 강요하였다. 이 때 한규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규설에 동조한 사람은 탁지부대신 閑泳綺와 법무대신 李夏榮이었고, 학부대신 이완용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는 강제 통과된 협약안을 궁내대신 李載克을 통해 황제의 勅裁를 강요한 뒤, 대한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 조인하고,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에 격분한 조병세와 민영환이 자결 순국을 하게 된다. 金澤榮은 망명 직후 이 소식을 접하고서 다음과 같은 작품을 남겼다.

半夜狂風海上來	밤중에 미친 바람 바다 위에서 오니
玄冬霹靂漢城摧	겨울에 뇌성소리 서울을 울리네.
朝衣鬼泣稽公血 ¹⁷⁾	조희 옷에는 귀신이 혜공의 피에 울고
犀甲天慳范蠡 ¹⁸⁾ 才	무소 갑옷은 하늘이 범여의 재주를 아꼈네.
爐底死灰心共冷	화로 밑에 꺼진 재는 마음과 함께 차고
天涯芳草自難回	하늘가의 향기로운 풀은 스스로 돌리기 어렵네.
蘭成 ¹⁹⁾ 識字知何用	나라 잃은 유신이 글을 좀 안다고 해서 어디에 쓰라
空賦江南一段哀	공연히 강남에서 한 조각 슬픔을 읊노라.

<追感本國十月之事>²⁰⁾

<追感本國十月之事>는 중국에서 안주하기도 전인 그 해 10월에 을사조약이라는 비보를 접한 후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일제의 간악한 행위인 광풍과 날벼락(을사조약)이 불자, 이러한 때에 조국을 등지고 이역에서 고독하게 지내야만 하는 자신의 흥회를 꺼져 가는 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라 잃은 선비인 자신의 처지를 난성에 비유하며, 조국의 몰락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心懷를 공연히 강남에서 슬픔을 읊노라며 자탄하고

17) 稽公血:晋나라 惠帝가 蕩陰의 싸움에 패하여 수호하던 군대가 흩어져 버렸을 때, 侍中 稽紹만이 홀로 혜제가 탄 수레를 지키다가 적에게 피살을 당하여 그의 피가 혜제의 옷에 묻었는 바 좌우에서 그 피를 씻으려 하자, 혜시중의 피는 씻지 말라고 하였음.

18) 范蠡:春秋時代 楚나라의 사람으로, 越王 勾踐을 도와서 吳나라를 멸망시키어 會稽의 치욕을 씻어 주었음. 그 후엔 벼슬을 버리고 陶에 숨어살면서 큰 부호가 되매, 세상 사람들이 陶朱公이라 불렀음.

19) 蘭成:남북조 시대 시인 유신(庾信, 513~581)을 가리킴. 그의 아버지 庾肩吾는 南朝 梁나라 태자 소강(蕭綱, 簡文帝)의 문학단체 문인이었으며, 유신도 젊어서 소강을 섬겼다. 그의 화려한 시풍은 같은 시대의 徐陵과 함께 '徐庾體'라고 하여 문학단체에서 유행하였으며, '宮體詩'의 명수였다. 그러나 侯景의 난이 평정된 뒤 元帝 蕭繹의 명으로 西魏의 수도 長安에 사절로 머무는 동안 서위의 침공으로 양나라가 멸망했다. 남조를 대표하는 문인이었던 유신은 서위에 이어 北周에서 후대를 받았다. 유신은 망국의 슬픔과 망향의 비극을 賦詠이나 시문에 결집시켜 나타냈다. 이 시기의 작품은 양나라 때의 작품과는 형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시문을 집대성하여 당나라 율시의 선구가 되었다. <哀江南的賦>와 <擬詠懷> 27수가 대표작이며, 『庾子山集』 16권이 있다.

20) 우리나라 10월의 일을 추감하다.

있는 것이다.

또한 황현의 자결 소식을 듣고 지은 시에서도 滄江의 우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聞黃梅泉殉信作>에서 가장 절친했던 친우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滄江이 우국 시인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嗚呼賦>에서도 일제에 당해야만 하는 현실을 통분하고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에 대해 심한 패배감을 가지고 있다. 이 중 <聞黃梅泉殉信作>을 살펴보고자 한다.

麥秀歌終引猷卮	슬픈 노래 마치고 독 술잔 당기니
五更風雨泣山魑	새벽 비바람에 산도깨비 우네.
誰知素定胸中義	누가 본래 정해져 있는 가슴속 의리를 알라
已在嗶嗶十咏時	이미 뜻 큰 모습이 열 가지 읊을 때에 있었네.
詞垣誰復是真才	문단에 누가 다시 훌륭한 재주 있느냐
璧月無光斗柄摧	구슬 달은 빛이 없고 북두자리 꺾였네.
知否賞音人獨在	당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 홀로 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青楓江畔望魂來	푸른 단풍 강 언덕에 혼령 다시 오기를 바라네.

茅家處士鼠年衰	뗏집에 사는 선비 쥐 같은 나이 슬프니
曾乞荊川染筆來	일찍이 당형천에게 붓을 빌어 왔네.
今日文成君不見	오늘 글을 이루었으되 그대 보지 못하니
秋風吹死硯山苔	가을바람이 불어 연산의 이끼를 죽이네.
問路頻煩折簡中	빈번하게 편지 속에서 길을 물었더니
扁舟早晚到吳淞	작은 배로 조만간 오송에 이르겠지.
可憐從我淮南意	나를 회남으로 쫓아온 뜻이 가련하니
却向西山二子從	문득 서산을 향하여 백이숙제를 쫓네.

<聞黃梅泉殉信作>²¹⁾

金澤榮과 황현은 오랜 지기이자, 시우였다. 金澤榮은 황현이 경술국치를 당해 절명시를 쓰고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작시한 것이다. 개인의 무력

21) 황매천이 나라 위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짓다.

감을 절실히 느낀 이 작품에 대하여 오윤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현은 자기의 詩稿를 金澤榮에게 맡기라는 유언을 남겼다. 황현의 시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죽음에 달빛도 숨죽이고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 자루가 부러졌다는 비유로 招魂하는 滄江의 비애 묘사가 곡진하다. …(中略)… 그의 마음은 한밤중 풍우 속에서 山鬼가 우는 듯 처절하기만 하다.²²⁾

오윤희의 평처럼 충과 의로 살았던 당시 지식인들의 心懷를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다. 절명시를 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金澤榮 역시 경술국치를 황현과 같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心懷는 황현에 대한 애도이지만, 그러한 애도는 동질감에서 발아된 것이다. 즉, 작품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서산을 향하여 백이숙제를 쫓는다는 표현은 황현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표현이다. 金澤榮은 이와 같이 죽음의 순국을 가슴아파했다. 그 이유는 지기의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의 우국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2. 安重根 의거를 통한 朝鮮 認識

安重根은 1879년 9월 2일에 순흥 안씨 진사 안태훈의 장남으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이름을 중근이라 하였으며, 자는 응철이다. 1897년 19세 되던 해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홍석구 신부로부터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907년 8월, 29세 되던 해에 군대 해산의 참상을 목격하고 망명길에 올라 북간도를 경유하여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다. 이후 독립군이 되어 여러 전투에 참가하고 31세 되던 해인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²³⁾를 총살함으로써 대한 남아의 의기를 세상에 알린다. 이후 옥중에서 『安應七歷史』와 『東洋平和論』을 執筆하기 시작하여, 『安應七歷史』는 脫稿하였으나 『東洋平和論』은 완성하지 못하였다. 1910년 3월

22) 오윤희, 『滄江 金澤榮 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1996, 32쪽.

23) 이하 이토로 표기함.

26일 32세의 일기로 여순 감옥에서 殉國하였다.²⁴⁾

安重根이 이토를 총살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토가 首將이 되어 韓國의 식민지화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토는 日本에서는 오랜 숙원이던 대륙 진출을 실현한 日本의 민족적 영웅이었으나, 韓國의 知識人에게는 동양 평화의 파괴자로 認識되었다. 國權을 상실해 가고 있던 韓國의 知識人들은 이러한 시대 상황을 연출한 元兇으로 이토를 認識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中國의 知識人들은 이토에 대한 認識이 중립적이었다. 이미 淸日戰爭은 과거사였으며, 1905년 러일전쟁 때 보여주었던 中國의 모습은 오히려 日本에 友好的이었다. 中國에서 대대적인 반일운동이 일어난 것은 1915년 5월에 승인된 日本의 21개 조 요구가 알려지고 난 이후이다.²⁵⁾

中國 知識人이 이 사건을 바라본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민우일보> 사설을 보자.

…(中略)… 이로하여 이등은 한때 천자의 신하로, 제후의 벗으로 되었으니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천지개벽이래 전례 없는 일인지라 죽어도 영광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²⁶⁾

물론 이 사설의 전체 대의는 安重根의 義學를 찬양하고 있으나, 이토에 대한 중립적 시각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과 동일한 心懷를 발견할 수 있는 양계초의 <秋風斷藤曲>을 살펴보자. 작품의 분량상 일부만을 拔萃하고자 한다.

…(中略)…

千秋恩怨誰能訟 천추의 은원을 누가 옳고 그르다 하겠는가

24) 安重根, 『安重根 義士 自敘傳』, 서울; 범우사, 2000.

25) 진순신, 『중국의 역사 12』, 서울; 한길사, 1995 參照.

任桂淳, 『淸史』, 서울; 신서원, 2000 參照.

26) 尹炳爽, 『安重根傳記全集』, 서울; 국가보훈처, 1999, 323쪽 再引用.

兩賢各有泰山重 두 위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죽음은 태산보다 크도다
 塵路思承晏子鞭 사마천이 안자를 추모하듯 나는 그대²⁷⁾를 경중하였으나
 芳隣擬接要離塚 나의 무덤만은 꽃다운 이웃²⁸⁾과 함께 하리다
 …(以下 省略)…

<秋風斷藤曲>²⁹⁾

中國의 變法運動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인 양계초의 이토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천추의 은원은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이토 역시 위인으로 사마천이 晏子를 추모하듯 이토를 敬重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安重根과 같은 죽음을 따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즉, 安重根의 이토 膺懲을 한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것이며, 자신 역시 中國의 적에게 그러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 中國의 主賊은 러시아와 프랑스로 認識되었다.³⁰⁾

황계강의 <弔伊藤博文>이란 시를 보면 이러한 心懷가 훨씬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등박문을 추모함이라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황계강은 이토의 죽음을 복잡한 心懷로 노래하고 있다. 詩 全篇에서 보여주는 心懷는 이토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침략을 일삼았던 이는 그렇게 죽어야만 한다는 認識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嗚呼哀哉	아! 슬프도다
誰百年之有盡兮	누가 수백년을 살리오
自前代而固然	죽음은 깨지지 않는 법칙이건만
閱夫子之恒化兮	그대의 큰 뜻이 깨어졌으니 가련하도다
碎疆天以兩丸	하늘의 뜻으로 부서졌으니
豈國家之無祿兮	나라의 불행이라 통곡해야 할까

27) 이토 히로부미를 의미함.

28) 安重根을 의미함.

29) 朴殷植, 『安重根』, 상해: 대동편집국, 1914, 17쪽.

30) 任桂淳, 『淸史』, 서울: 신서원, 2000 參照.

抑人生之多難 다난한 인생이라 한탄해야 할까
…(以下 省略)…

<弔伊藤博文>³¹⁾

황계강의 <弔伊藤博文>이란 시 역시 전편에 드러나는 心懷는 영웅의 죽음에 대한 哀悼이다. 詩 어디에도 安重根에 대한 責望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中國의 知識人들은 이와 같이 이토로 대변되는 日本에 이중적 認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金澤榮의 <聞義兵將安(重根)報國讎事>라는 작품과는 그 心懷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平安壯士目雙張 평안도 장사가 두 눈을 부릅뜨니
快殺邦讎似殺羊 나라 원수 죽이기를 양 죽이듯 하였네
未死得聞消息好 죽기 전에 좋은 소식을 들으니
狂歌亂舞菊花傍 국화 곁에서 미치게 노래하고 어지럽게 춤추네

海蔘港裏鵲摩空 블라디보스톡 항구 위에 소리개가 내려치더니
哈爾濱頭霹靂火紅 하얼빈 역두에 번개 불 치네
多少六洲豪健客 슬한 천하의 호객들이
一時匙箸落秋風 세찬 가을 바람에 일시에 수저와 젓가락을 떨어뜨렸네

從古何嘗國不亡 예로부터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으랴
織兒一例壞金湯 언제나 나라 망치는 건 못된 벼슬아치들
但令得此撐天手 하늘을 떠받들만한 거인이 나타났으니
却是亡時也有光 나라는 망할지라도 빛이 나구나
<聞義兵將安(重根)報國讎事>³²⁾

이병주는 이 작품을 두고 滄江의 대순과 일제에의 증오가 새삼 추상같

31) 朴殷植, 『安重根』, 상해; 대동판집국, 1914, 19쪽.
32) 朴殷植, 앞의 책, 20쪽.

다고 표현하였다.³³⁾ 부언하자면 이 작품에서 金澤榮은 안중근을 민족적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義學를 첫째 수와 둘째 수에서 사실적 묘사와 더불어 높이 평가하고, 셋째 수에 이르러서는 자신과의 동일화를 추구하고 있다. 예로부터 나라를 망친 것은 못된 벼슬아치라는 반성과 하늘을 떠받들 거인이 나타났으니 나라는 망했으나 영예롭다는 표현에는 작가 자신이 이루어야 할 다짐이 녹아 있는 것이다. 안중근의 찬양과 자신의 憂國意志를 잘 드러낸 이 작품을 통하여 金澤榮의 망명 후 世界觀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IV. 結論

文學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드 보날의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다.’일 것이다. 이 命題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문학과 현실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문학은 현실의 반영에 다름 아니며 그것 역시 작가라는 媒介體를 통한 반영인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문학자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역사가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학 연구자들은 항상 역사 研究를 병행하여 왔으며, 역사주의 비평 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비평의 한 방식이다. 문학 작품을 研究하면서 작가 研究를 게을리 하지 않은 이유는 생뚱 뵈브의 ‘그 나무의 그 열매이다.’라는 정의가 주는 效用性을 문학 연구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滄江 金澤榮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라는 한국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살았던 인물이다. 또한 우리 국문학의 중요한 한 흐름인 漢詩史에서 大尾를 장식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金澤榮 研究는 疏略하기 그지없다. 그 중요한 이유로 전집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시 문학에 대한 학계의 상대적 홀대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보면 滄江 金

33) 이병주, 『한국 한시의 이해』,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00, 382쪽.

澤榮 研究는 시급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滄江 金澤榮 文學의 문예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이끌어내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그 선행 작업으로 전집의 국역과 그의 망명 후 세계관을 고찰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망명 후 滄江 金澤榮의 세계관을 망명에 대한 滄江의 인식, 중국 지식인과의 交遊 속에서 드러난 작가의 우국관, 몸은 조국을 떠났지만 주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작품을 매개로 하여 고찰하였다. 작품의 해석에 전기적 비평을 사용하여 작가의 삶의 軌跡을 의미 있는 중요한 변수로 수용한 것은 시대적 여건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가 牽強附會식 자료의 해석으로 인하여 精緻함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작품과 역사와의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문학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滄江은 출판의 자유가 제약된 조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인 중국에서 그가 추구한 역사서를 통해 민중의 계몽을 실천할 수 있었고, 망국의 한을 작품 속에 담아 국내·외 많은 지식인들과 교류함으로써 당대의 시대 인식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滄江은 국내는 물론 중국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르네 윌렉·오스틴 워렌 공저, 金秉喆 譯, 『文學의 理論』, 乙酉文化社, 1996.
 朴殷植, 『安重根』, 대동편집국, 1914.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외침과 저항』, 일조각, 1989.
 박충록, 『金澤榮 文學 研究』, 태동, 1989.
 서경수편·엄경흡역, 『한시의 미학』, 보고사, 2001.
 阿英 編, 『甲午中日戰爭文學集』, 中華書局出版, 1958.
 안대회, 『조선후기시화사』, 소명출판, 2000.
 安重根, 『安重根 義士 自敘傳』, 범우사, 2000.
 오윤희, 『滄江 金澤榮 研究』, 국학자료원, 1996.

- 尹炳旼,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9.
- 이병주, 『韓國 漢詩의 理解』, 이화문화출판사, 2000.
-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任桂淳, 『淸史』, 신서원, 2000.
- 진순신, 『중국의 역사 12』, 한길사, 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4.

<투고일 : 2005.6.28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Viewpoint of Kim Taek-young after Exile

- Centering on Chinese Poetry -

Kim, Jin-wook

A classic definition on relations between literature and reality is that “literature is a reflection of reality” by De Bonal. As suggested in this proposition, literature is not identical to reality. Literature is a reflection of reality through a medium of author. In a strict sens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n reality should be taken care of by historians, not by literary people. However, lots of literary researchers have taken care of historical studies, and their historical criticism is still effective. Studies on authors should be followed by studies on literary works because literary researchers have been aware of effectiveness of the definition, “fruits grow from trees” presented by Saint te vovy(생띠베브).

Chang-gang Kim Taek-young lived in the most important period in Korea modern history from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He was at the end of Chinese poetry history which was an important flow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there were only a few studies on him. It is because his collections were not translated and literary circle at that time neglected Chinese literature. However, when it is considered we have to succeed to the past cultural heritage, studies on him are urgent. So, attracting various approaches on literary beauty of Kim Taek-young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purpose, his collections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nd his viewpoint of the world after exile should be speculated.

This study speculates his recognition on exile, his patriotism shown from exchange with Chinese intellectuals, and his recognition on important historical accidents after exile to identify his viewpoint of the world. It accepts his traces of living as an important variable using biographical criticism for interpretation of his work as it considers situations of that time. The discussion is not delicately taken care of because of farfetched view on data. However, researchers have made every literary effort for objective and correct development of his literary work and history.

Changgang contributed to enlightenment of the public through historical books in China when he left his home where freedom of publication was restricted. It seems that he shared recognition on the generation through exchange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s. It is judged that he had a great influence even on Chinese literature as well as Korean.

Key words : Changgang, Kim Taek-young, Jang Gun, Um Bok, Ahn Jung-geun, Eulsa-neukyak, Min Young-hwan, Cho Byung-se, Hwang Hyun

K C I